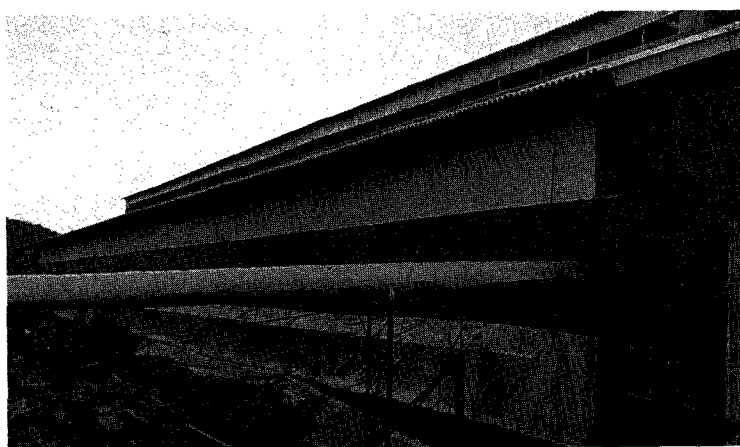


덤핑판매 막을 수 있는 관리규모가 최대 관건

□ 취재/이인수 기자



△대지 2천평에 건평 260평 계사 2동을 신축하여 현재 3만3천수 정도를 입추하여 산란중에 있으며, 계사 1동을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채 관계 산업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병아리 선택에서부터 사료, 사양관리, 질병 등 전반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UR에 대비해 정부에서는 각종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하면서 국내양계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생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과거에 비해 규모면에서는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양적 생산에만 치중해 왔었다는 부정적인 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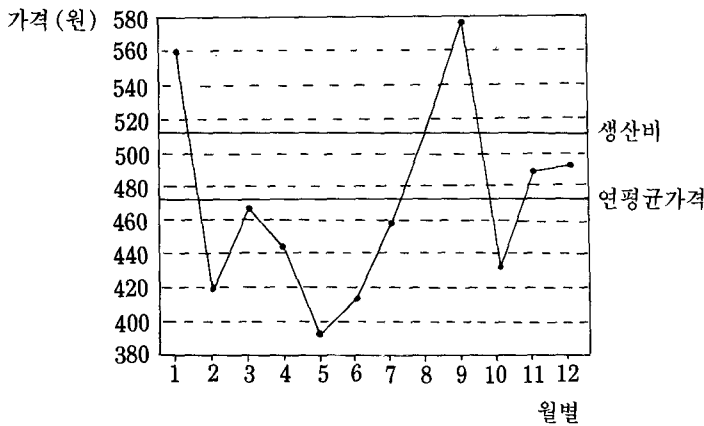
라고 강조하는 성구농장 강두문(62세) 사장은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에서 현재 대지 2,000평 규모에 건평 520평(1동 260평) 개방계사를 '92년도 하반기에 신축하여 현재 산란

었는데 그 당시 신촌부화장 직원들이 병아리를 판매하고 남은 500수를 주면서 길러 보라는 권유로 인해 현 채란인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근 5년여동안 산란계 500수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고에 시달려 남의집 품팔이에서부터 해보지 않은 일이 없다는 말에서 당시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그 당시 질병예방접종이라면 B₁ 백신접종과 120일령 정도에 ND백신접종이 고작이었는데 현재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7년도부터 사육규모가 차츰 증가하면서 본격적인 산란계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규모가 확대되다보니 기존재래식계사로서 부인 김소록(57세) 여사와 함께 경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차츰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재래식계사 급수형태는 최근 니플이 아닌 급수통에 물을 섭취토록 하는 형태였는데 닭의 생리적인 특성상 물과 사료를 번갈아 가며 먹게 되는데 이때 닭부리에 사료가 묻게 되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바닥에 떨어져 허실되어지는 사료량이 3만수

표1. '93년도 계란가격 변동사항



해도 없지는 않다.

실례로 '93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계란가격 변동사항에 대해 조사해 본 결과 연평균 계란 10개 생산비 513원, 농장수취 평균가격은 471원으로 나타나 외형적으로 적자경영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연중 2/3 이상이 생산비 이하를 밑도는 것이 현 국내 채란계산업의 현실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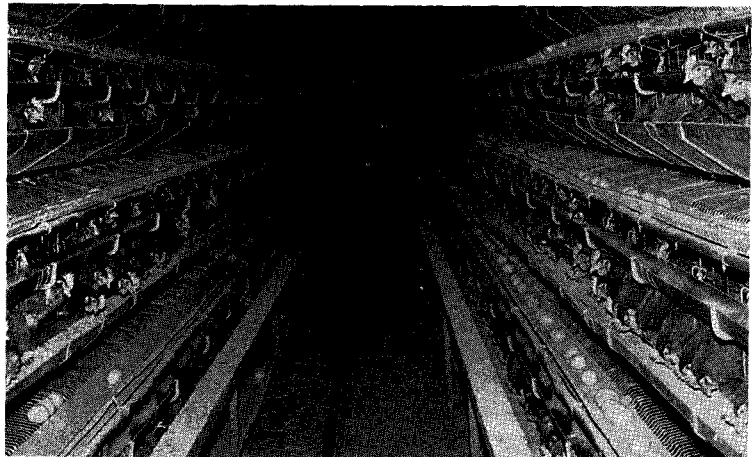
“적절한 규모로 경영을 합리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계 3만3천여수를 경영하고 있는 전문양계인이다.

지난 '71년도 친구집을 방문, 우연한 기회에 친구 권유로 육계 1천수를 구입하여 양계업과 인연을 맺었는데 당시 사양기술면에 있어 아는 바가 없어 50~60일 정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막상 키워놓고 보니 체중이 2.5~3.0kg까지 도달하여 출하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 위치한 영북면 성동2리 소재에 당시 콩 5말을 주고, 토지전세를 얻

기준으로 하여 하루에 대략 200kg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금액(현 kg당 230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보면 4만 6천원정도, 1개월(30일)이면 1백3십8만원정도가 발생되어 결국 계란생산비 상승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양계산업이 인력부족과 물가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가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지난 '92년도 하반기에 총3억3천여만원을 투입하여 폭 13m, 길이 67m 4단×4열 개방식계사 2동을 완공하여 성계를 사육하고 있으며, 현재 계사 1동에 지난 10



△현재 34주령 계군에서는 산란율 87%, 강제환우시킨 계군에서는 80%의 산란율을 보이고 있다.

월 23일 90일령된 중추 16, 512수를 입주시켜 산란율 87 유지하고 있었는데 강사장에 의하면 강제환우 이전 음수에 항생제를 첨가하여 섭취시키

사 2동에 대한 투자비용을 보면 '92년도 축산시설개선자금 3천3백만원과 도로확장으로 인한 토지보상금 8천2백만원을 합한 총1억1천5백만원으로

표2. 사료현찰·외상구입시 가격비교

(이자율: 월 2%기준, 단위: 원)

규모	구입형태	사료비(월)	1개월(30일)이자금 ()는 이자+원금	2개월(60일)	4개월(120일)	6개월(180일)
3만수	현찰	26,910,000 (130g×3만수×0.23원×30일)	-	-	-	-
	외상	26,910,000	538,200 (27,448,200)	1,076,400 (27,986,400)	2,152,800 (29,062,800)	3,229,200 (30,139,200)
5만수	현찰	44,850,000 (130g×5만수×0.23원×30일)	-	-	-	-
	외상	44,850,000	897,000 (45,747,000)	1,794,000 (46,644,000)	3,588,000 (48,438,000)	5,382,000 (50,232,000)

%를 유지하고 있고, 다른 한 계군은 1차 강제환우시킨 계군으로서 수당 1일 사료섭취량 105g, 산란율 80% 선을

면 강제환우기간에 폐사율이 다소 감소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총부지 2천평규모에 개방계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다소 무리한 투자를 해서라도 자동화 시설로 전환해야 앞으로의 경쟁력을 헤쳐나가리라 본다고

하면서 강두문 사장은 그간 현찰로 구매하여온 사료구입 문제가 최근 시설면에 투자가 이루어져 외상구입을 하고 있어 다소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향후 사료구입만큼은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반드시 현찰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강사장은 양계장 운영은 사소한 관리소홀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자동화시스템을 설치코자 할 경우 고장발생시 신속한 A/S가 가능한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국산기자재 협업체인 S케이지와 기계와 계분벨트는 S사, J사가 설치, 모두 국산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있는데 현 3만3천여수 규모에서 생산되어지는 계란은 하루에 900판(1판30개) 정도인데, 이는 150평 남짓한 계란창고에 보관, 판매하고 있는데, 만약 5만수로 규모를 증가시킬 경우 계란창고 증설과 인력구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잉생산이 되어 난가하락으로 이어져 계란이 장기간 체화될 경우 덤핑판매의 소지를 안고있어 가족노동력

과잉생산이 되어 난가하락으로 이어져 계란이 장기간 체화될 경우 덤핑판매의 소지를 안고있어 가족노동력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영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을 이용하여 적절한 경영규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구농장의 경영방침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료섭취량을 최소화시키면서 산란율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자기농장여건에 알맞은 적절한 경영규모를 선택하여 내실화를 다지는 것과 둘째 어떤 형태로든지 생산비절감을 통하여 향후 수입개방에 대비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최대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일반농가에서 현실로 접하게 되는 것이 질병문제를 비롯하여 사양기술 문제, 사료절감방안 문제 등을 들 수가 있는데 특히 현 생산비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문이 사료비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사료영세율 적용으로도 생산비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사육시 적절한 환기조절로 계사내의 적정온도 유지를 통하여 사료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생산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양계**